

키다리아저씨를 읽고

나에게도 키다리 아저씨가 있을까? 주디에게는 자신만의 키다리아저씨가 있다.



김연수 학생명예기자·동남중 1년

비록 편지를 쓰면서 키다리아저씨의 모습은 보지 않았지만 키다리아저씨를 상상하면서, 그리워 하였을 것이다. 고아원에서 18년동안 자라와서 곁에 곁에 자리와서 평의원으로부터 대학에 갈 수 있었다.

그래서 키다리 아저씨가 누구였는지 꼭 알아내었을 것이다. 나에게도 만약 이렇게 좋은 키다리 아저씨가 항상 내 뒤에 서 지켜보았다면 난 정말 주디처럼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가서 꼭 키다리 아저씨처럼 멋진 분과 함께 살 수 있었을 것이다.

고아원에서 자란 아이였지만 비활하게 자라지 않고 바르게 자라 키다리아저씨의 기대감도 더 부풀려 주는 것 같다. '조운림가드' 지은이의 '너는 특별해'라는 책에서 틈은 고아원에서

나도 나의 키다리 아저씨를 찾아서 열심히 공부하며 내가 사는 것에 행복을 느끼며 늘 감사해야겠다.

포천학생야영장을 다녀와서

5월29일 포천학생야영장을 다녀왔다. 인원은 23명이고 아침 7시에 버스를 타고 야영장으로 출발했다.



박정한 학생명예기자·일동초 6년

가보니까 우리 일동초스카우트 말고도 더 많은 스카우트가 와 있었다. 우리 일동초등학교 6보에 속했고 코스는 세줄타기, 타잔놀이, 매듭법, 측정타이어 통과 등이다.

첫 번째 세줄타기는 두 줄을 손에 잡고 발에 중심을 잡는 것이다. 두 번째 타잔놀이는 플라잉 점프라고 불리며 줄을 묶고 원 속에서 오른쪽으로 타잔처럼 뛰는 놀이이며 물에 젖으면 안 된다.

세 번째 매듭법은 생활에 필요한 매듭이다. 옥 매듭, 맛

등 등 평소애 사용하는 대표적 매듭이다. 네 번째 측정은 자신의 몸이나 물건 등으로 어렵거나 자로 측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통나무가 3m인데 2m90cm를 하면 떨어진다. 그래서 측정이 필요하다.

다섯 번째 타이어 통과다. 통굴에 통과 있다. 그리고 그 통굴이 작다면 힘들어도 나와야 한다. 타이어통과는 굴에 갇히면 그 걸 빠져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번 야영장에서의 체험은 즐거운 게임정도로 생각되었지만 일동초등학교 총보장으로서 보원들이 코스를 제대로 마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하는 책임감이 컸다고 생각한다.

고입·고졸 검정고시 오는 8월3일

경기도교육청 원서접수 6월9일~17일

경기도교육청은 2005년도 제2회 고졸 검정고시를 오는 8월3일(수)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은 9일부터 오는 17일까지이며 원서교부장소는 경기도교육청 민원봉사실 및 제2청사 민원봉사실, 25개 지역교육청에서 실시한다. 우편접수는 불가하며 평일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원

서를 접수한다. 원서교부 및 접수장소는 경기북부지역은 의정부시 소재학교, 경기남부지역은 수원시 소재학교에 지정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중등교육과 031-2490-237,253 또는 중등교육과 031-8200-644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포천중고 영농학생전진대회 우수한 성적

농기계 운전분야 3학년 윤찬현 君 최우수상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광주종합고등학교에서 개최된 제41차 경기도영농학생전진대회에서 포천종합고등학교가 최우수상 4개, 우수상 4개를 수상했으며 8개 분야에 걸쳐 골고루 수상한 것으로 알려져 실업계 교육의 표본이 되고 있다.



제41차 경기도영농학생전진대회에서 포천종합고등학교가 최우수상 4개, 우수상 4개를 수상하며 8개 분야에 걸쳐 골고루 수상한 것으로 알려져 실업계 교육의 표본이 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이 주최하고 경기도영농학생회와 한국농업교육협회 경기도지부, 광주종합고등학교가 주관, 경기도농업기술원이 후원해 마련한 이번 대회는 미래사회를 선도할 잠재력 유능한 신지식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대회는 총 18개 종목중 경진 8개 분야 13종목, 발표 3개분야 5종목으로 실시됐으며 포천중고는 7개종목에서 수상한 것이다.

구체적인 수상내역은 발표분야 단위영농학생회운영사례발표에서 학교분야와 개인(3학년 이재홍) 분야에서 각각 우수상을 수상했고, 환영의 밤에서 민속반(양주용 등 26명)의 갈의 춤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또 경진분야 동물자원(축산)에서 최우수상(3학년 홍승영, 2학년 김아성)과 우수상(3학년 윤영유, 2학년 마신아, 1학년 정태훈, 1학년 장보국)을 수상했다. 또 경진분야 원예번식은 3학년

김보영 학생이 우수상을, 과제이수 발표 비생산분야에서는 3학년 김혜민 학생이 우수상, 농기계 운전분야에서는 3학년 윤찬현 학생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김순진의 연재 수필

아빠 어렸을 적에(29)

복숭아 서리

고등학교 2학년 즈음 되어 보이는 누나들 몇 명이 흰 린넨 속에 브래지어를 착용한 채 수영을 하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순간, 나는 내 눈을 의심했습니다.

한 누나가 꽃무늬 팬티만 입고 수영을 하는데 물에 젖은 팬티가 몸에 꼭 달라붙어 아랫도리가 새까맣게 드러나 보이는 것입니다.

여자들은 밤에 몰래 개울에 나와 서너 명씩 짝을 지어 목욕을 하며 수다를 떠는 것이 고작이고 낮에는 보통 옷을 모두 입은 채로 물에 들어가는 것이 예상인데 그 누나들은 당당하게도 팬티 바깥으로 목욕을 하여 내게 처음으로 아랫도리가 빼근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나도 꽤 자랐나 봅니다. 아마도 학교에서 바로 개울로와 수영을 하기 때문에 갈아입을 옷이 없어서 그랬나 봅니다.

가슴이 풍릉 뛰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이제 나는 아이가 아닌 남자가 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들은 배를 채우기 위해 배가 없어 주리산 뒷자락 밑에서 나오는 샘물로 허기진 배를 채우고 바위나리를 캐 먹었습니다. 근

쳐 뽕나무밭에서 오디를 입과 헛바닥이 새까맣게 따 먹으면서 서로 허를 내 놓고 깔깔거렸습니다. 풀밭을 뒤져 피라미, 불거지, 죽지, 붕어, 쉬리, 마자, 모래무지, 미꾸라지, 기름종개 등을 잡아 개울의 한 귀퉁이를 막아 담긴 물에 풀을 뜯어다 넣고 물고기가 죽지 않고 도망가지도 못하게 보관하였습니다. 고무신을 벗어 다슬기를 두어 뒷밭이나 주웠습니다.

"야, 그만 놀고 집에 가자." 온종일 물속에서 보낸 우리들은 어둑어둑 땅거미가 지자 입술이 새파래지며 감바람에 부들부들 떨며 바위 위와 자갈밭에 벗어 놓았던 옷을 주섬주섬 주워 입었습니다.

개울 한 귀퉁이에 모래를 막아 잡아 놓았던 피라미며 쉬리, 개리, 마자, 붕어들을 종명이에 주워 넣었습니다.

가지고 온 채며 반두, 비료포대를 찢겨들고 모래 묻은 고무신을 깨끗한 물에 헹구어 신고 올 때와 마찬가지로 한 줄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야, 배고파 죽겠는데 우리 복숭아 서리 해 먹을까?" 제환이가 소리쳤습니다.

"그래, 그거 좋은 생각이다." 무지개를 떼어 먹으면 내입에

내가 맞장구 쳤습니다. 의견의 일치를 보았지만 금방 복숭아 과수원 근처에 다다르자 의견이 분분해져서 다투기 시작

했다. "내가 망 볼까?" "아니야, 내가 망 볼 거야!" 잡히기가 싫으니 서로 자기가 망 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정말 가슴이 뛰고 온 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려서 서리를 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무나 고구마를 캐 먹어 본 적은 있지만 울타리를 쳐 놓고 개까지 기르는 과수원의 과일을 따 먹어본 적은 없었습니다.

육신간신 끝에 망보는 사람 없이 모두 철조망 울타리를 넘어 들어가 복숭아를 다섯 개씩만 따기로 하였습니다.

제환이를 선두로 일체, 제환이, 응재, 그리고 나와 일체가 철조망을 넘어섰습니다.

탐스런 복숭아를 보니 잡힐 것에 대한 두려움은 언제 그랬느냐는 듯 잊게 되었습니다.

윗옷을 바지춤에 추서 넣고 가슴에 복숭아를 따 담았습니다. 나무 위에 올라서서 발그스레한 연분홍빛의 탐스런 복숭아 한 개를 꼭 따서 반바지의 허벅지에 쓱쓱 문질러 한입 베어 물었습니다.

순간 입에는 천만 가지 달콤함이 허기를 물리치며 솟구칩니다. 복숭아가 아니라 용궁 속에서 심청아버지 앞에 처러진 산해진미였습니다.

무지개를 떼어 먹으면 내입에 들어온 복숭아 맛과 비교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입안에서 사르르 녹는 아이스계개를 한두 번 먹어 보긴 했어도 그 맛은 감히 견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군부대 참성기념일에 들어가 기마전이며 차진놀이 구경하다가 운 좋게 얻은 플라 반병의 맛도 그 맛에 걸쭉



김순진

시인, 소설가, 수필가
http://cafe.naver.com/yob51
011-9123-4422

들어온 복숭아 맛과 비교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입안에서 사르르 녹는 아이스계개를 한두 번 먹어 보긴 했어도 그 맛은 감히 견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군부대 참성기념일에 들어가 기마전이며 차진놀이 구경하다가 운 좋게 얻은 플라 반병의 맛도 그 맛에 걸쭉

것은 어찌하면 엄마 품에 안겨 빨린 엄마의 젖 맛일 겁니다. 이 맛 때문에 옛날 신선들이 무릉도원에서 비록, 장기를 두며 사셨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야! 이거 되게 맛있어."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소리쳤습니다.

"야, 새까! 조용히 해." 제환이가 낮은 목소리로 눈을 흘리며 중용했습니다.

(계속)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정책 간담회

청소년 건전육성 토대 마련



포천시청소년상담센터는 지난달 30일 포천시 여성회관 2층 제1강의실에서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포천시 청소년상담센터(소장 김영진)는 지난달 30일 포천시 여성회관 2층 제1강의실에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포천교육청 및 포천경찰서, 포천시, 포천관내 각급학교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해 진행된 이날 간담회는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는 김영진 소장의 '학교폭력에 대한 상담연구' 주제 발표에 이어 '학교폭력의 실태' 학교폭력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방안 '가해 및 피해학생 상담방법' '각 기관간 긴밀한 업무협조방안' 등에 대한 다채로운 논의가 이뤄졌다.

지혁배 기자 94spice@hanmail.net

고객만족 이벤트

- ★ 20만원 이용시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 ★ 50만원 이용시 3만원 상당 꽃배달 무료 이용권을 드립니다.
- ★ 100만원 이용시 5만원 상당 무료 이용권을 드립니다. (주유권증정)
- ★ 200만원 이용시 15만원 무료 이용권을 드립니다. (주유권증정)

포천의 대표이름 꽃집

늘봄꽃 직매장

www.pochonflower.co.kr

TEL 080-540-3681
031-542-3681
031-542-8959
FAX 031-543-1193

늘봄꽃 농원

TEL 031-543-3681
FAX 031-541-3683

국민은행 : 219-21-0414110
농협 : 585-02-003557

Tip

식물관리요령

- ▶ 물주기
표면의 분토가 마르는 것을 기준으로 흠뻑준다
- ▶ 습도
열대·아열대 지방이 원산지이므로 고온다습 70~80%
- ▶ 광선
실내의 경우 광선이 많이 들어오는 곳에 관리
- ▶ 온도
15°C에서 30°C내외의 생육이 활발
- ▶ 비료
봄·가을 생육기에 희석액 월 2~3회 준다

혼합꽃바구니

장미바구니

분홍장미바구니

축이예요

캐네이션바구니

어스바구니(데)

100송이골라리팍스

3년장미바구니

원형장미다발

완전한사랑100%

장미100송이바구니

로맨스바구니